

참된 신앙의 동의 - 그리스도인의 신앙 감각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교도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한다. 특히, 이 교도권을 통한 가르침은 “하느님의 백성이 빛나거나 쇠약해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교리서, 890항) 무류성(無謬性: 오류가 없음)을 갖는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도권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아무런 성찰이나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놀랍게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부들은 ‘무류성’을 단지 교도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교부들은 무류성이 교도권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성령께 도우를 받은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회헌장, 12항). 신자 전체가 믿음에 있어 무류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신자 전체가 갖는 무류성은 성령의 이끄심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고” (가톨릭교회교리서, 91항), 성령께서는 이 기름부음을 통해 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1요한 2,27 참조). 즉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면 그리스도의 무류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류성은 각각의 개별 그리스도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신자) 전체가 갖는다는 사실이다. 하느님 백성 전체 즉,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개로” (교회헌장, 12항) 하느님의 백성은 무류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음으로써, 초자연적 신앙 감각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러한 감각을 통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 더욱 충만히 적용하게” (교회헌장, 12항)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도권의 가르침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보편적인 동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①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교도권의 인도를 받아, ②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는 초자연적 신앙 감각을 통해, 계시된 진리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해 왔고,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할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91항 참조).

[2015년 7월5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옥 세레나/(건강)/
- 브랜든 존스톤 (키모), 정황자 세실리아 /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선우 유스티노의 영혼을 위하여	김화연 이시돌	생	김모니카, 한아가다 이아네스, 이프로렌시아 영유스티나의 생일을 맞이하여	아빌라 데레사
연	이봉기 요아킴의 영혼을 위하여	이 베네딕도	생	이영애 클라라 축일을 맞이하여	이 데레사
연	박우돈 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박재래 마리아	연	서순금 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김채홍 어거스틴 & 웰레나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8월 11일(화)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4,525.00 \$ 1,227.00
8월 12일(수)	연중 제19주간 수요일	오전 7 : 30	교구 원 캠페인 토요일 특전	\$ 500.00 \$ -
8월 13일(목)	연중 제19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145.00 \$ 145.00
8월 14일(금)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 \$ 161.00
8월 15일(토)	성모 승천 대축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200.00 \$ 6,903.00
8월 16일(일)	연중 제20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12 윤정연 4~6월 한오임 4~7월 서희석 5~8월 원승남 6월 이대원 7월 김운대 허영 이은로 김재열 이돈수 신영후 8월 윤영자 정춘자 구준모 김광희 김평옥 안강숙 이서향 남필레 전정옥 허용희 전기레 김병준 이강덕 장신자 김길록 김중순 김영숙 7월~12월 장현재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d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80 Grand Ave. #202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7495</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만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지나 ☎ (916) 362-0260</p>	<p>부동산·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과산법 전문 (, 사업법,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 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상 19:4-8 제2독서 에페소서 4:30-5:2 복음 요한 6:41-51

화답송: 시편 34(33), 2.-3, 4-5, 6-7, 8-9 (◎ 9ㄱ)

화답송



생명의 양식은 광야에서 쏟아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요한 6,41)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요한 6,42)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결국 “저 인간 별 것 아닌데” 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는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말의 칼과 화살들이 날아다니며 피를 흘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 인간 별 것 아닌데” 라는 군중의 수군거림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위력이나 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완전히 발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아는 사람, 즉 하느님과 통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느님과 통해 있는 사람은 “너 별거 아니잖아” 라는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은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살아야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고 힘을 내서 소중하게 챙기고 가꾸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빵이신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생명의 빵이 쏟아진 곳은 주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장 직면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독서의 엘리야는 광야에 서있는 인간의 모습과 광야에서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광야에 선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하며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1열왕 19,4)라고 간청합니다. 광야는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불편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양식을 발견합니다. 죽을 작정을 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빵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도록 격려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 힘으로 밤낮으로 사십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뜨거뜨 광야의 순간을 견뎌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광야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결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삶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양식이 광야에서 쏟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은 훨씬 의미 있고 풍요로운 여정이 됩니다.

예전 본당 김기환 요셉 신부

장
종
지

마음의 풀밭

내 마음의 풀밭에
풀들이 춤을 춘다.
안 되는 날 오실 땐
풀들이 춤을 춘다.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